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운영위원회 32차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어린이학교 종강발표회가 13일(화)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저녁식사는 5시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대강절 연속기도는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 입니다. 편리한 시간을 미리 정하여 시간표에 기록해주시시오.
- 유아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17일(토)까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시오. 유아세례식은 성탄축하예배(25일) 중에 있습니다.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서울경기강원 네트워크 모임이 17일(토) 오전 11시 춘천 예수마음교회에서 모입니다.
- 지난 9일(금) 포천시 교육지원과에서 급식지원사업 현장점검을 다녀갔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박태규 · 전향옥 집사 가정 (감사)
 김중필 · 이현숙 집사 가정 (감사)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예찬 청년 (생일 감사)
 박동인 · 윤경옥 집사 가정 (결혼기념)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50 호

2022년 12월 1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요즘 성서일기 본문이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17장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게 되는 핵심적인 활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그가 얼마나 장대하고 위압적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키는 거의 3미터에 달했고, 갑옷의 무게만도 약 60kg이나 됩니다. 창은 벼들의 용두머리만큼 굵어서 일반 창보다 훨씬 큰 것을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리에서 홀로 나와서 싸움을 걸면서 크게 외치는 소리에도 이스라엘 장수들은 감히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중에는 전장에서 뼈가 굵은 숙련된 장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한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계곡 저편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일에 흥미를 갖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라는 말형 엘리압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만류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나가게 되는데, 평소와 다른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감히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흥미롭게 쳐다보다가, 그 정체를 알고서는 실소를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티를 이제 막 벗은 소년 하나가 무장도 하나 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오면서 허리를 굽혀서 계곡 바닥에 있는 돌맹이를 하나씩 줍는 모습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토록 어이없는 상황에 웃음을 터뜨린 후에는, 아마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던 모양입니다. 골리앗은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다윗을 갈갈이 찢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침착하게, 자신을 향해 폭언을 날리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답합니다. <45>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7> 또 주님께서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무 칼도 가지지 않은 채로 무릿매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 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이 돼버린 골리앗도 자신의 패배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작 다윗을 전장으로 보냈던 사울은 뒤늦게서야 자기 장수에게 물어서 다윗의 출신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 모두 다윗의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약자들을 향해서 내뿜는 강한 자들의 목소리는 저주와 협박의 소리입니다. 약한 자들은 그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적은 수에 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가장 약하고 어린 자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논하고 함부로 우리를 판단하며 이야기할 때, 그것에 귀 기울여 위축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의 자세가 날마다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38장, 335장, 80장, 420장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사무엘기상 18:6~30

제목 :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1. 내용: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다. (What)
 - 1)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6~13>
 - 2)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 하다. <14~19>
 - 3)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다. <20~30>
2. 의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 (Why)
 - 1) 사울은 오해를 했다. <8>
 - 2)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12, 15, 29>
 - 3)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 <12, 14, 28>
3. 적용: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자. (How)
 - 1) 객관화 하도록 노력하자.
 - 2)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 3) 하나님께서 함께 해 달라 기도하자.

사역공동체 이야기

글을 쓰고 편집하는 일로 밥벌이를 하지만, 특히나 교회 이름으로 나가 는 곳에 글을 쓰는 일은 매번 고민스럽다. 한편으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 일부가 떠오르기도 하며 걱정되지만, 그래도 쉽게 써보련다. 사실 누군가 글을 쓰지 못해 ‘핑크’가 난다면, ‘덕질’이란 주제(이 주제의 글 은 내년쯤에 기회가 오면 쓸 테니, 기대해 주시라)로 글을 쓰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방공동체운영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급하게 바꾸었다. 역할공동체 중에서 몸담고 있는 ‘사역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사역공동체는 ‘사역’이란 무거운 이름이 수식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의 다양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랑방 코이노니아 방송국, 도서 출판 사랑방, 나사렛 목공소, 베다니 하늘 주방, 루디아 공방, 공동체 자료실 이 사역공동체에 속해 있다. 유튜브 방송도 하고, 출판, 목공, 공방일 등을 통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미 목공이나 공방일을 통해서는 소소한 수입을 올리고는 있고, 관련 사업자를 낼 준비도 하고 있 다. 반려식물 키우기도 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출판사로 등록돼 있는 도서출판 사랑방의 일손 부족이 가 장 아쉽다. 올해 공동체학교 창립 30주년이었는데, 도서출판 사랑방 이름으 로 변변한 책을 내지 못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랑방지도 못 냈으니, 여 간 아쉬운 게 아니다. 현재 도서출판 사랑방 소속 인원은 두어 명에 불과하 다. 특히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같다.

대학생 시절 종로에 있던 사랑방교회에 다닐 때는 젊은이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주일 후보 준비도 하고 청소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신림동 작 은나무공부방에서 늘푸른·젊은이사랑방의 봉사과제로 교사 활동을 했던 일 도. 덕분에 아내(최연우 집사)를 만나고 사랑방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사실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아쉽게도 난 이제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다.

소위 MZ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포천은 그리 매력적인 곳이 못 된다. 그 럼에도 이곳 사랑방공동체에서 젊은이들이 그들만의 아이디어로 ‘대박 나는 벤처’를 키워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 장은 바로 사역공동체 를 통해 펼쳐지길 바란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하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이사야 9 : 2,7 인도자
67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84, 88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요한복음 12 : 12-19 설교자
112 사랑방
“ 예수 그리스도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453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영화 임상희 / 봉헌위원 : 김순정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슌9:9>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왕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하던 왕의 모습이나 전통적으로 생각되던 왕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사9:6>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계21:4~7>

왕을 섬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왕의 역할을 하는 왕의 대리자들입니다. 왕의 대리인은 왕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써 왕을 섬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오영욱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대강절 기간을 지내며 꾸러기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성탄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이와 모루, 천사점토를 이용해 별, 종, 초, 지팡이, 트리, 리스와 같은 성탄장식을 만들어 자연예배당 유리창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올 한 해 동안에 꾸러기들을 섬겨주신 분들을 기억해 보고 꾸러기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꾸러기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시니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형편상 그럴 수는 없어서 그 중에서 몇 분에게 감사 케이크를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꾸러기차를 운전해주시는 이용신 장로님, 날마다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요리선생님들, 꽃전과 송편을 만들 때 도와주시고 집으로 초대해 피자를 만들어주신 장미숙 권사님, 여름여행에 함께 가서 정말 신나게 놀아주신 석지인 선생님, 아빠와 함께 캠프 때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신 한민아 선생님, 점심시간이면 꾸러기들에게 하트를 남발하는 어린이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꾸러기들의 할머니 이월영 교장선생님에게 꾸러기들이 만든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해서 정성껏 만든 선물 케이크를 잘 들고 갔습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선물을 전하는 꾸러기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난 한 주는 학기를 정리하고 학년말발표회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기말이 되면 학년별로, 반별로 때론 과목별로도 피드백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학기에 몇 번씩 하게 되는 피드백 시간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생각을 정리합니다. 피드백은 내가 감정적으로 상대의 단점이나 내가 느끼기에 싫은 것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 내 눈에 비친 상대의 모습을 나와 네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사랑의 고민이 먼저임을요.
배움과 가르침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 대해 듣게 되는 쉽지 않은 시간인데 어린이들은 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얘기하며 듣는 사람들도 그 어느 시간보다 성숙하고 진지하게 듣습니다. 이럴 때면 나이가 어리다고 다 어린 건 아닌 거 같죠? ^^

지난 목요일에는 벌써 어린이학교에서 마지막 생일을 맞은 6학년 하린이를 많은 동생들과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린이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이 하린이의 삶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학년말 발표회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올해에는 직접 오셔서 감동과 재미와 웃음이 있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지난주 멋쟁이학교는 속초와 학교로 종강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 속초에 도착한 뒤 저녁에 워터피아 나이트스파에 다녀왔습니다. 칼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한 온천을 왔다 갔다 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였습니다. 짝 축구도 하고 남녀 축구도 하였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패딩을 벗고 땀 흘리며 운동하는 멋쟁이들의 열정과 에너지 덕분에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공동체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체 훈련 시간에는 서로 눈을 마주 보고 눈으로 이야기 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웃음이 나고 눈물도 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서로가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정동진에 들려 바다도 보고 사진도 찍은 뒤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학교에서 피드백과 대청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한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멋쟁이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공동체식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멋쟁이학교는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 동안 가정에서 충분한 쉬고 오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부도 스스로 채우며 알찬 방학생활을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박예나 >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믿음 있는 가정을 잘 꾸려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도 신앙으로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꿈만 꾸고 살았는지 가족들의 신앙적 결실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하나님이 어딴냐'하고 믿음을 버렸고 남편은 교회 예배에 빠져 지냅니다. 실패감과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면 믿음 있는 남편으로 인해 영적인 은혜의 떡고물을 거저 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신앙적 결단이나 실행 없이 영적으로 별 탈 없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란 신앙의 도둑이었나 봅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라지만 관념적인 바램이었나 봅니다.

저는 간절히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꼭 극적이 아니어도 하나님 뜻을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개념이 아닌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요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활 가운데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가야겠구나. 이제 거저 얻는 믿음이 아닌 내 골수에 박힐 믿음을 회복해야겠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선택해야겠구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좀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아야겠구나...

- 먼저 바쁘지 않고 단순하게 지내보자.

- 오지랖 참고 버릴 것과 정리할 것 무엇인지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보고 재미있는 유튜브, 앱 등을 삭제하자.

- 주님께 집중하려고 성서 일기라도 날마다 쓰자.

예수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생각한 것을 지키고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활공동체 그루터기사랑방 정혜정 권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88장, 453장

성경 : 사무엘상 12:22~25

말씀 : 도고기도 드리는 공동체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대강절을 맞이하는 교회를 위해)

전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대강절을 맞아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오시도록, 각 나라와 교회, 개인의 마음속에 깊이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라파 공동체를 위해)

- 1) 올해부터 5년간 사회적 농업 농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정부와 협력의 틀을 잘 세우고, 라파마을이 사회적 농업의 모범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 2) 창립 20주년인데 30주년의 비전을 받아서 10년의 꿈을 꾸며 나아가도록.
- 3) 라파 중독치유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교회, 예수의 단순한 삶 공동체, 라파마을 생태자연농장의 네 기관이 각기 교회를 이루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생활공동체가 함께 하는 밥상, 축하, 기도시간 모여 하나됨을 누리도록.
- 2) 멋쟁이 종강여행을 위해 - 안전한 여행, 의미있는 여행이 되도록.
- 3) 공동체 감기환자들 - 항체가 생겨 이겨내는 기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월요일 공동생활 식구들 전체가 3분기를 정리하는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있었던 것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 영역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식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터전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기에 앞으로 나무와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모든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장영미 전도사>